

'세계 춤꾼들의 무대'...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

아시아문화전당·5·18민주광장서 4일 개막...1300여명 '배틀라인업'



세계의 춤을 느낄 수 있는 축제가 광주에서 펼쳐진다. 광주시는 6월4일부터 7일까지 나

흘동안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5·18민주광장에서 '2026 광주 스트리트컬처 페스타'가 열린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축제는 국내의 정상급 댄서 1300여명이 참여하며 배틀과 케이팝(K-POP) 댄스, 시민 참여형 공연으로 구성됐다.

'배틀라인업'은 힙합·락킹·팝핑·락킹·오픈스타일 등 총 5개 장르에서 1대 1 대결을 통해 우승자를 선정하고 댄서를 꿈꾸고 있는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키즈&유스 배틀'도 열린다.

5·18민주광장에서는 케이팝 댄스 경연이 진행된다. 청소년부와 일반부로 구성된 37개 댄스팀이 단체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이번 축제의 심사위원은 리헤이, 진우, 러브 란, 단젤, 아가넌 등이 맡았다.

이 밖에도 그래피티 작업, 초크아트, 스트리트댄서 스타일링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가 설치되고 미식 관광 콘텐츠도 전시된다.

이승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인 배틀라인업은 2분만에 매진 될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며 "이번 축제를 통해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5·18민주광장을 중심으로 한 도심형 세계적 문화 축제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도기 기자

광주시, 여성친화마을 수행 단체 6곳 선정 기획 1곳·특화 5곳...총 7500만원 지원

광주시는 최근 성평등 문화 확산과 지역사회 안전·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2026년 여성친화마을 조성사업' 수행 단체 6곳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공모는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 실현을 위해 광주형 대표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기획공모' 부문과 5개 자치구별 특성에 맞춘 '특화공모'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기획공모 부문은 참신아이에스지 협동조합·동문마을기후환경연합 공동체 이음·두루모아문화공유공동체·(재)광주시민방송 등 4개 단체 네트워킹인 '안전넷 여친넷'을 선정했다.

'안전넷 여친넷'은 신안동 등 기후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여성 주도 안전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재난 리포터 양성, 라디오 제작 등을

통해 안전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특화공모 부문에는 ▲동구 '친절한 페미'의 동네책방 거점 성평등 인문학 강좌 ▲서구 '새나가온'의 성평등 디지털 플랫폼 구축 ▲남구 '남구 미리네'의 마을여성 기자단 육성 ▲북구 '꿈나무사회복지관'의 가족합창단을 통한 성평등 양육 환경 조성 ▲광산구 '어룡동주민자치회'의 생태자원 활용 여성 생태해설사 양성 사업 등 5건을 선정했다.

광주시는 기획공모 부문 선정단체인 '안전넷 여친넷'에 사업비 2500만원을, 특화공모 부문 선정단체에 사업비 각 1000만원을 지원해 총 7500만원을 교부한다.

선정 단체들은 6월 중 보조금을 교부받아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한다. /조선주 기자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성료 여수엑스포장서 3일간 열려

전남도는 성평등가족부, 여수시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장에서 개최한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체임 인원 약 12만 명을 기록하며 청소년과 방문객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청소년의 힘으로 더 푸른 미래를!'이라는 주제로 열린 박람회는 많은 방문객이 찾은 가운데서도 중대 안전사고 없이 치러졌다.

전남도는 행사 전부터 소방, 경찰, 보건위생 등 유관기관과 사전 합동 점검을 했으며, 행사 기간 중에는 현장 안전요원과 자원봉사자 등 안전관리 인력을 집중 배치해 동선 분산과 밀집도 관리에 총력을 기울였다.

박람회에서 청소년들의 이목을 가장 집중시킨 분야는 인공지능(AI) 시대를 직접 경험하는 'AI·첨단 디지털 미래 콘텐츠'였다. 청소년 디지털 콘텐츠 경진대회와 로봇 경진대회를 비롯해 드론·로봇 축구, 증강현실(AR) 스포츠, 레이저 태그 서바이벌 등은 청소년의 창의력을 자극하며 현장 방문객의 관심을 끌었다.

지난달 29일 이상완 카이스트(KAIST) 인공지능융합연구센터장의 AI 강연에 이어, 30일에는 인기 크리에이터 '도티'의 특강도 열려 청소년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이와 함께 개그맨 박성광·황혜선의 강연도 긍정적 에너지를 불어넣으며 큰 공감을 얻었다. 청소년 동아리의 역동적 댄스와 밴드 공연 등은 방문객의 호응을 얻었다.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성료

전남도는 성평등가족부, 여수시와 공동으로 지난달 30일까지 3일간 여수엑스포장에서 개최한 제22회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가 체임 인원 약 12만 명을 기록하며 청소년과 방문객의 호응 속에 막을 내렸다고 밝혔다. /전남도 제공

전남, 유기질비료 적기 공급...신청시기 6월로 앞당겨

공급 체계 개선 농업인 불편 해소

전남도는 지역 농업인의 영농 적기 비료 사용을 돕기 위해 6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2027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은 전년도 11~12월에 이뤄졌다. 이때문에 공급업체 선정·예산 확정·계약 등 행정절차가 연초에 물리면 실제 비료 사용 시기인 1~3월 공급이 지연되는 문제가 반복됐다.

전남도는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시군·농협 등

관계기관과 대책 회의를 열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청 시기 조정과 시스템 개선을 건의했다. 그 결과 올해부터 표준사업 지침이 개정돼 신청기간이 기존 11~12월에서 6~7월로 앞당겨졌다.

온라인 신청은 6월1일부터 10일까지 농업경영정보시스템 '농업e(이)지'를 통해 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7월1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품목은 유기질비료 3종인 혼합유박·혼합유기질·유기복합비료와 부숙유기질비료 2종인 가축분퇴비·퇴비다.

신청 단계의 비료 가격은 올해 공급업체별 계약가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2027년 공급가격은 올해 10~11월께 최종 확정될 예정이어서 일부 품목은 신청 당시 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에 차이가 날 수 있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올해 전남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규모는 44만4000t이다. /김호 기자

전남도, 일본 농수산물식품 수출 확대 협약

일본 TV홈쇼핑·유통망 연계...상품 기획·통관 등 지원

전남도가 일본 현지 홈쇼핑·물류 전문기업과 협력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TV홈쇼핑 시장 진출과 기업 간 거래(B2B) 수출 확대를 위한 협력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일본을 방문 중인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일본 도쿄에서 일본 홈쇼핑·통신판매 전문기업인 포티포(Forty-four, 대표 시시나미 요시오), 현지 물류·풀필먼트 전문기업 노아(NOAH, 대표 공병준)와 함께 '전남 농수산물식품 일본 시장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했다.

포티포는 도쿄에 본사를 둔 홈쇼핑·통신판매 전문 기업으로, 상품 기획부터 광고·영상 제작, 판매전략 수립 등 통신 판매를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농수산물식품의 일본

TV홈쇼핑 입점을 위한 상품기획, 홍보 콘텐츠 제작, 마케팅 및 판매 전략 수립 등을 맡는다.

노아는 게이오백화점, 도큐백화점 등 일본 주요 대형 유통매장과의 네트워크를 보유한 물류·유통 전문기업이다. 상품 수입·통관부터 보관, 배송, 고객 대응까지 일본 시장 진출에 필요한 전 과정을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일본 현지 유통망 연계와 B2B 수출 확대를 위한 물류·유통 체계 구축 및 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전남도는 협약을 계기로 일본 TV홈쇼핑 시장 진출을 확대하고 현지 유통망과 연계한 수출 판로를 다변화해 전남 농수산물식품의 해외 시장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김호 기자

'금연 환경 조성 공모' 광주 우수기관에 선정

광주시는 제39회 세계 금연의 날 기념식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광주시는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30m 이내를 금연구역으로 확대 지정하고 안내표지를 정비했다. /김도기 기자

또 시내버스 광고와 포스터 배포 등 시민 생활에 밀착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 찾아가는 이동 금연클리닉, 금연캠페인을 지속 운영했다.

세계 금연의 날은 세계보건기구(WHO)가 흡연의 폐해를 알리고 금연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매년 5월 31일을 지정하고 기념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 /김도기 기자

광고문의 : 062-363-8800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